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된 항목들의 핵심 요점들

(금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영원한 생명

성경: 마 7:13-14, 고후 3:6, 계 22:1-2

- I. 주님의 회복의 길은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의 길이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생명의 내재적인 본질을 알아야 한다 — 시 16:11, 렘 21:8, 요 1:4, 10:10하, 14:6, 고전 15:45하.
 - A. 삼일 하나님의 내재적인 본질은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이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5:26), 아들 하나님은 생명의 체현이시며(1:4), 영 하나님은 생명의 흐름이다(4:14하, 7:38-39상).
 - B. 새 예루살렘의 내재적인 본질은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계 21:23, 22:5), 아들 하나님은 생명나무이시며(22:2), 영 하나님은 생명수의 강이시다(22:1).
 - C.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도록,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이자 부활 생명, 곧 흐르고 변화시키고 건축하는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신다 — 창 2:22, 요 19:34, 시 36:8-9.

- II. 영원한 생명, 곧 삼일 하나님의 생명은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어, 이 생명 안에서 거듭남과 거룩하게 함과 새롭게 함과 변화와 같은 형상을 이룸과 영광스럽게 함을 통해, 주관적으로 믿는 이들을 구원한다 — 롬 5:10하, 8:2, 10, 6, 11.
 - A. 먼저, 이 생명은 그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었다 — 롬 8:2.
 - B. 둘째로, 이 생명은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이 되었다 — 롬 8:10.
 - C. 그런 다음, 이 생명은 우리의 생각이 속해 있는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생명이 된다 — 롬 8:6.
 - D. 결국, 이 생명은 우리의 몸에 침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몸의 변형, 즉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롬 8:11, 23, 빌 3:21.

- III.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생활을 위한 유일한 길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교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신성한 본성 안에서 흐르는 신성한 생명이다 — 계 21:21하, 22:1-2, 요일 1:3.
 - A. 거룩한 성의 길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는 순금이며, 생명수의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른다 — 계 21:21하, 22:1.
 - B. 신성한 생명이 흐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기 위한 거룩한 길로서의 신성한 본성이 있다. 신성한 본성의 거룩한 길이 있는 그곳에는 신성한 생명이 흐르고 있다 — 벰후 1:4, 요 7:38-39상.
 - C. 보좌에 연결되어 있고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길은 '교통의 길'이다. 신성한 교통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끌어 오는데, 그 목적은 그들 속에서 그들의 보좌가 되시어 자신의 금에 속한 행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자신께로 그들을 다시 이끌기 위한 것이다 — 계 21:18하, 22:1-2, 21:21하, 비교 겔 1:22, 26, 왕상 10:18.

D.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안에서 행하고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금에 속한 행정 아래로 이끌려, 생명의 흐름과 생명의 공급을 누리게 된다 — 계 22:1-2.

IV.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 곧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칙, 곧 의존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 — 창 2:9, 17, 롬 8:6.

- A. 생명나무로 상징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식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나무는 독립을 가리킨다.
- B. 지식이나 종교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임재를 갖지 않은 채로 선하게 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요 5:39-40, 15:5하.
- C.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독립하는 것이다. 독립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 놓는 영적인 절연체이다 — 엡 4:18.
- D. 우리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직접 접촉하며 살기를 배워야 한다 — 고후 1:12, 히 11:8, 마 6:28, 비교 왕상 7:17-19, 아 8:5상, 비교 대하 16:12, 사 50:10-11.

V.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열정과 타고난 힘과 타고난 능력을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생명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 요 7:38, 고후 3:6, 요일 5:16상.

- A.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불로 영 안에서 불타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로 처리받지 않았고 부활 안에 있지 않은 타고난 열정을 상징하는 다른 불로 봉사하지 말아야 한다 — 출 3:2, 눅 12:49-50, 롬 12:11, 레 10:1.
 - 1. 제사장의 봉사에서 다른 불, 곧 주제님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초래한다 — 레 9:24, 10:1-2.
 - 2. 다른 불을 드린 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세상적이고 천연적인 것이나 육신과 관련되고 물질적인 것들을 과도하게 누리는 것을 상징한다 — 레 10:8-9.
 - 3. 제사장들이 술에 취하면 거룩함에 관한 분별력을 잃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칠 수 없게 된다 — 레 10:10-11.
- B.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은 십자가로 처리를 받아,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부활 안에서 유용하게 되어야 한다 — 빌 3:3.
 - 1. 모세는 사십 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 제쳐진 후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 — 출 2:14-15, 행 7:22-36, 히 11:28.
 - 2.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한 후에, 믿음에 의해 겸손으로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배웠다 — 눅 22:32-33, 요 18:15-18, 25-27, 마 26:69-75, 벘전 5:5-6.

VI. 왕국 헌법을 반포하실 때,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생활과 일의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다 — 마 7:13-14, 21-27.

- A. 파멸로 이끄는 넓은 길은 세상적인 체계에 따른 것으로서, 타고난 취향을 만족시킴으로 많은 균중을 얻고, 사람의 경력을 쌓으며, 사람의 큰 사업을 이루는 것이다 — 마 13:31-33, 계 2:13, 20, 17:4-5.
- B. 생명으로 이끄는 비좁은 길은 신성한 규제에 따른 것으로서, 영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산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니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다 — 롬 1:9, 히 11:5-6, 계 1:1-2, 9-10.

- C. 생명 안에 있는 살아 있는 보상으로 이끄는 길은 그 길이다(행 9:2, 19:9, 23, 22:4, 24:22). 그 길은 진리의 길, 바른 길, 의의 길(벧후 2:2, 15, 21), 평안의 길(눅 1:79, 롬 3:17), 구원의 길(행 16:17), 하나님의 길(마 22:16, 행 18:26), 주님의 길(요 1:23, 행 18:25)이다. 그 길은 이단의 길이라고 비방을 받는다(행 24:14).
- D.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항상 좁고 비좁은 생활과 일을 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과 사역의 본에 따른 것이다 — 요 5:19, 4:34, 17:4, 14:10, 24, 5:30, 7:6, 18.
1.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행해야 한다.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를 제한함으로써,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하고, 활력적이고 건강한 믿는 이들이 되게 한다 — 롬 8:4, 갈 5:16, 22-23, 살전 5:16-18.
 2.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로서 뿌리셨고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지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해방되어 많은 열매를 산출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야 한다 — 마 13:3, 요 12:23-26, 10:11, 요일 3:16.
 3. 교회를 산출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주님께 필요한 일은 애써서 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 생명이 흘러넘치고 흘러 나가는 것이다 — 요 7:37-39, 4:10, 14.
 - a. 우리의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일의 양이 아니라 일의 질이다. 금과 은과 보석은 언제나 양은 적지만 질은 높은 반면, 나무와 풀과 짚은 언제나 양은 많지만 질은 낮다 — 고전 3:12-15.
 - 1) 금은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보석은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그 영을 상징한다.
 - 2) 나무는 인간 본성을 상징하고, 풀은 육체 안의 사람을 상징하며, 짚은 생명이 없는 것을 상징한다.
 - b. 우리는 우리의 일의 양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의 질에 따라서, 곧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고전 3:13.
 - c. “워치만 니 형제님이 외적인 일을 관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생명의 결과가 이미 온 땅에 퍼졌다. ... 내 일생에 걸쳐 알아 온 사람들 중에 그만이 유일하게 일보다 생명을 더 중요시했던 사람이다.”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 니, 142-143쪽)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과 일을 규제하기 위한 왕국 헌법의 반포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에 대해 교통하기 원한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먼저 길을 가고 그다음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신성한 길, 곧 하나님의 길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길을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왕국의 헌법에 관한 주님의 반포 안에 포함된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이것을 ‘산상 수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수훈’ 다시 말해 설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설교나 강연을 하는 교수가 아니셨다. 그분은 왕이셨다. 신약은 그 시작에서 우리에게 왕국을 제시한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천국이다.

서른아홉 권에 걸친 구약의 긴 기간 후에 신약이 도래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첫 번째 항

목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 항목은 왕국인데, 이 왕국은 다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천국이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왕국의 이 두 방향을 분별하는 법을 모른다. 왕국의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것은 다소 일반적이다. 그러나 두 번째 방향은 천국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에 의해 소홀히 되고 거의 놓쳐졌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들은 그 둘이 동일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마태복음을 안다면, 마태복음이 천국의 방향을 극도로 강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천국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며, 그것은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과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네 번밖에 언급하지 않는다(마 12:28, 19:24, 21:31, 43). 그러나 마태복음의 스물여덟 장을 통해 천국이 계속 반복하여 언급된다(‘천국’의 정의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5장 3절 각주 4번 참고).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네 방향의 구주를 제시한다. 그분은 ‘정사각형’ 구주이시다. 새 예루살렘은 동글지 않고 정사각형이며(계 21:16), 우리의 구주 역시 정사각형이시다. 만일 당신이 ‘둥근’ 사람이라면, 당신은 교활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처럼 정사각형이 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우주까지도 네 방향, 곧 동서남북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는 오직 네 면을 갖고 계신다. 마태복음에서 그분은 왕이시고, 마가복음에서 그분은 노예이시며, 누가복음에서 그분은 사람이시고,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첫 번째 방향을 제시한다. 마태복음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문이다. 이 서문 이후에 왕이 등장한다. 그분은 산으로 가셔서 5장부터 7장까지에서 그분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왕국의 헌법을 반포하셨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우리의 왕께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반포하신 이 헌법의 한 작은 부분이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우리의 활력 그룹 훈련에서 이것을 교통하고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 것이다. 우리는 왕국 헌법의 반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과 일을 규제하는 문제임을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단지 안의 우리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의 생활 곧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과 일은 유기적인 것이어야 하며, 신성한 요구들을 성취하는 신성한 규례들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왕께서 반포하신 그분의 왕국의 헌법 안에서 완전히 계시된다.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활력적인 믿는 이들이 되기 위해 생명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받음

우리의 활력 그룹은 거칠거나 무분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규제를 잘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규제를 잘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 있고 활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건강한 사람에게 그의 건강한 이유를 묻는다면, 그는 생명의 원칙들을 주의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은 밤에 일하지 않고 낮에 일할 것이다. 심지어 조지 밀러는 밤에 여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당신이 낮에 여행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지만, 밤에 여행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밤 열 시부터 오전 여섯 시까지 잠자는 것은 매우 건강한 것이다. 그러나 낮 시간 동안에 잠자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원칙이다.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으며 또한 밤과 낮을 정하셨다. 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것이 먼저 왔다. 창세기 1장에서 밤과 낮은 하루이다(5절). 당신의 건강을 위해 밤은 중요하다. 만일 당신이 밤을 현명한 방식으로 주의한다면, 당신은 건강할 것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밤 근무를 요구하는 많은 직업들이 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경찰관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르면, 밤은 우리가 잠자기 위한 것이고, 낮은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들이 생명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고 말할 것이다. 각각의 이 원칙들

이 우리를 규제한다. 만일 우리가 너무 급히 먹는다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또한 너무 느리게 먹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건강한 식사가 아니다. 건강한 식사는 반드시 적당해야 하며 또한 너무 급하거나 느리지 않음으로 우리 몸의 내적 느낌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가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생명의 원칙들에 주의할 때, 이것은 우리를 신체적으로 활력화시킨다.

우리는 활력화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념 안에서 우리는 활력화되는 것이 삼손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삼손은 활력적이지 않았다. 그는 오래 살지 못했다. 그는 다른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일종의 자살을 해야 했다(삿 16:30). 다른 한편으로 보아스는 매우 활력적이었다.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지난 여름 훈련에서 우리는 사사기에서 생명에 속한 것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너 장으로 된 룯기는 생명의 책이다. 나는 만일 그 책이 오늘날 쓰였다면, 그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생명이 충만한 놀라운 단편 소설이다. 보아스는 건강한 사람이었으며 활력적이었다. 어떤 능력 있는 오순절과 설교자들은 부도덕했지만 능력이 있었다. 그들은 삼손과 같았다.

당신은 삼손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보아스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확실히 생명의 원칙들에 따라 규제를 받은 사람인 보아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활력적인 사람이었다. 누가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이끌어 왔는가? 삼손은 그리스도의 노선 안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연결 고리였다(마 1:5). 그리스도는 보아스로 인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다(마 1:5). 이것이 활력적이 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이다.

내가 이 메시지를 위해 주님을 앙망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나를 사랑하고 활력적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좁은 문과 제한된, 협착한 길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라’라는 영감을 주셨다. 활력적이 되는 것이 어떤 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무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자라지 않는다. 우리는 십칠 년 전에 애너하임에 있는 집회소 주변에 많은 작은 나무들을 심었지만, 오늘날 그것들은 모두 큰 나무로 자랐다. 그것들의 성장은 생명의 원칙들에 따른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원칙들을 정하셨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안에서 훈련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항상 좁고 협착한 생활과 일을 갖는 것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그러나 파멸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 영적 세계에는 넓은 길이 없다. 영적인 영역에서의 길은 항상 협착하다. 이 길에서는 우리의 자유가 항상 제한을 받는다.

모든 나무는 제한을 받는다. 만일 모든 나무가 제한 없이 자란다면, 그것은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나무는 제한된 방식으로 자라고 퍼진다. 나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에 더하여 사람의 가지치기, 곧 손질이 필요하다. 손질은 사람이 한다. 제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비록 나무들이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제한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손질하는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또한 손질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해 기적은 언급하지 않지만, 그 대신 주님은 손질을 분명히 언급하신다. 당신은 열매를 산출하고자 하는가? 손질되고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다(2절). 손질되는 것은 제한받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기를 받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칠어서는 안 되며 제한받아야 한다.

우리는 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음이 많지 않은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생명의 열매는 기적으로 생가지 않는다. 우리는 제한받을수록 더욱더 규제받는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규제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된다. 열매는 우리의 건강으로부터 온다. 병든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살아 있지만 병들어 있는 것은 생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정하심은 나무와 같은 생물들이 활력적으로 자라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활력적으로 자라야 한다. 활력적이 되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하고 정상적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일 년에 하나의 남은 열매를 맺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 저에게 매년 하나의 열매, 남은 열매, 건강한 열매, 바로 나처럼 건강한 열매를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바울의 역사(歷史)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은 수고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기를 갈망했다. ‘각 사람’에게 하는 일은 결코 기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은 가장 큰 은사였으므로, 우리는 그가 모든 일을 기적적으로 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이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없었음을 말해 준다. 바울은 기적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수고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삼 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있었음을 본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고 말했다(행 20:19, 31). 눈물은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암시한다. 그는 성도들을 ‘밤낮으로’ 훈계했다고 말했다(행 20:31). 그는 집회에서 대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가르쳤다고(행 20:20). 그가 대중 앞에서 가르쳤지만, 그의 일은 ‘각 사람’의 방식으로 더 많이 이루어졌다. 그는 다만 강연을 하지 않았다. 바울은 성도들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도하였다.

항상 공중에 높이 날아다니는 사람은 남아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마 그는 지난주에 셋을 얻었고 이번 주에 둘을 더 얻었다고 말하겠지만, 일 년 후에 남아 있는 열매를 한 사람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어떻든 지난주에 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알고서 나는 그들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더 나은 몇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더 나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와 같지 않다. 모든 어머니들은 외모나 행위에 관계없이 자기의 아이를 사랑한다.

스팍스(T. Austin-Sparks) 형제는 이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는 1955년에 처음으로 우리를 방문하기 위해 대만에 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어머니는 자기의 아이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그녀의 아이에 대해 조금도 나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한번은 어떤 어머니가 그녀의 아이를 그에게 데려왔는데, 그 아이는 그다지 귀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어머니 앞에서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그에게 안겨 주었을 때, 그는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오, 이 어떠한 아이인가!”라고 말했다. 이것은 중립적인 말이었지만, 그 어머니로 하여금 “옳아, 나는 훌륭한 아이를 가졌어.”라고 생각하게 했다. 어머니에게는 자기의 모든 아이들이 훌륭하다. 우리는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하다(살전 2:7). 새로운 사람에 관해 우리는 “그는 좋은 재료가 아니야. 그는 결코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남아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일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손길 아래 세 사람 또는 네 사람만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에 있어서 자신을 제한하기를 배워야 한다.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의 헌법은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다음 우리는 길을 가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접촉하지 말아야 하므로, 너무 많이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을 멈추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왕국 헌법을 극도로 반대하는 것이다. 왕국에 대한 주님의 헌법은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해야 한다.

내가 너무 많이 가지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 일해야 한다. 좋은 학생은 매일 그의 수업을 준비하며 조금씩 공부한다. 우리의 문제는 규칙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활력 그룹에 관한 훈련에 참석한 후에, 우리는 여전히 활력적인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이 활력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며, 활력적이 될 때 일하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결코 활력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일한다면 비로소 활력적이 될 것이다.

무엇이 활력적이 되는 것인가? 활력적이 되는 것은 평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있는 방식으로 평범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우리의 영 안에 머물고, 모든 일을 영을 따라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를 평범한 믿는 이, 활력적인 믿는 이로 만든다. 나는 어느 정도의 기도가 없이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메시지는 나의 평범한 기도로부터 나온다. 만일 우리가 아침에 얼마간의 기도를 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약해지고 침체될 것이다. 부흥되는 유일한 길은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정결케 하소서. 주님, 저에게 기름 발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생명의 원칙들을 주의하는 것은 우리를 활력적이 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왕국을 위해 사람들을 접촉해야 한다고 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수행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심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평범해질 수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신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정상적이 되고 건강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호흡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잠자야 하고 적당히 운동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건강해지리라 불가능할 것이다. 활력적이 되는 것은 바로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호흡, 곧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운동을 위해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우리는 한 주에 두 차례 밖에 나가 사람들을 접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휴식할 필요가 있다. 잠자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활력적이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활력적이 되는 것은 바로 평범해지는 것, 정상적이 되는 것이다.

삼십여 년 전에 어떤 형제는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매우 신선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내가 그와 같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만일 내가 나의 영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접촉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신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진부할 것이다. 내가 신선해지는 열쇠는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며 활력적이 되게 한다. 지주 나는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다. 만일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활력은 우리가 정상적이고 평범한 데서 나온다.

우리는 어느 정도 활력 그룹 훈련을 받았으므로,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심을 수행하는 우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매년 최소한 하나의 남아 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생명의 모든 원칙들이 요한복음 15장에 함축되어 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의 정상적인 상황이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평범한 방식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활력적이 될 것이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따르는 것을 볼 것이다. 최근에 나는 아주 여러 해 동안 주님의 축복이 나를 따르는 것에 대해 주님께 크게 감사한다. 나는 나의 고향 엔타이에서 상하이로 갔다. 상하이에서 나는 중국의 여러 성들을 두루 여행하였다. 결국 나는 대만에 보내어졌다. 대만에서 나는 필리핀과 동남아시아로 갔다. 그다음 나는 미국에 왔다. 육십여 년 동안 나는 주님의 축복이 나를 따르는 것을 보았다. 만일 주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 모두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비정상적이고 활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제한된 길을 가기를 배워야 한다. 그분의 제한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제한되지 않은 방식으로 변성하고 확장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러시아에 간 것은 우리 나뭇대로의 변성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님의 행하심이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러시아에 가는 데에도 주님의 제한을 보았다. 우리는 고속 도로에서 운전할 때 차선 안에서 운전해야 한다. 그것은 제한이다.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손상을 줄 것이다.

커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당신은 제한받을 필요가 있다. 교회생활 안의 환경은 우리를 좁히고 제한한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야 한다. 큰일을 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지 말라.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감으로써 다만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생활하라. 그럴 때 확실히 당신은 매년 남아 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당신에 의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도록 도움을 받을 것이다.

나는 육십여 년 동안 주님을 위해 일해 왔다. 거의 매일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기를 배우고 있다. 나는 제한받기를 원한다. 나는 경력을 나타내고 사람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모든 시간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쫓는 정상적이며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 언제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가라. *(활력 그룹의 훈련과 실행, 163-172쪽)*